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신속한 농업 현장애로 해결 위해 SNS 활용한 전문가 기술컨설팅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전문가 기술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문자나 사진으로 SNS에 등록하면 해당 품목 기술전문가가 실시간으로 기술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시 · 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농가의 도움요청에 즉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NS 기술컨설팅은 6월 1일부터 단감, 배, 버섯, 참다래, 한우, 돼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여 명의 농가 및 기술전문가가 품목별 모임에 가입하여 100여 건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 SNS 기술컨설팅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에서 보유하고 있는 8,900여 명의 농식품분야 기술전문가와 선도농가를 활용하여 운영된다. 농기평에서는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취약한 농업인들을 위하여 SNS 기술컨설팅 전용 휴대전화번호(010-5246-3979)를 개설 ·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관심 있는 품목명을 문자로 남기기만 하면 해당품목의 모임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SNS 기술컨설팅사업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폭우 · 폭설 · 폭염 등 농업재해, 병해충, 가축질병등이 증가하고 있는 농업 환경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이 기술컨설팅을 활용할 경우 농가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SNS 기술컨설팅 과정에서 전문가그룹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질의 컨설팅을 위해 전용 시

스템(앱)개발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15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와 말 수출 · 입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말 질병예방 등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6월 11일(수) 한국마사회에서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말 인플루엔자 등 말 질병 예방, 방역, 전염병 실태조사, 진단 및 연구 확대, 경주마 이동시 검역문제 등의 업무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말보건 인프라 분야인 말 질병 정밀진단 서비스 제공 및 실험실 정밀진단 기술 교류, 기후변화에 따른 말 질병 조사 확대, 경주마 성체줄기세포 자원 확보 및 임상적용 등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인천 아시안 게임 및 국제경주 등 말 수출 · 입 증가에 따른 검역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말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가재난형 질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날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이 말 인플루엔자 등 말 질병 예방, 방역, 연구 및 검역 등 공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과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프랜차이즈 업체 원료 공급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찰청(청장 이성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 · 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 · 가공업체 198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 · 연장 · 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식약처 · 경찰청 · 농식품부(농관원) · 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

11월까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상담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실시한다. 기간은 5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다.

이번 상담은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과 외부 상담사들이 각 시군을 찾아가 기술 수요 조사와 기술 문제 해결에 나선다. 방문 상담은 총 31회에 걸쳐 1,400명을 상담하며, 전문 기술 투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축산 경영, 개량, 번식, 사양 관리, 질병 등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방문 상담에서는 새롭고 중요한 기술을 소개하고 각 지역의 기술 수준에 맞춘 상담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기술을 찾아 정책 제안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사후 관리로 축산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3%의 만족도를 보였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송용섭 기술지원과장은 "올해에도 상담을 통해 축산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찾아내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하고, 결과를 신속히 보급 · 확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내외 축산 전문가 모여 악취 저감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6월 12일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과학원 강당에서 맞춤형 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축산 악취 저감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축산 악취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미래 농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주제 발표에서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돼지용 풀 사료와 돼지우리 바닥에 뿌리는 악취 저감제(아몬드피)를 소개했다. 국내 전문가로서 참석한 한국 암모니아 네트

워크 연구소 이상룡 박사와 국립축산과학원의 조성백 박사는 악취 저감 국내외 동향과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저감 기술을 발표하고 축산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외 축산 악취 전문가로 참석한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청의 바노티(Matias B. Vanotti) 박사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코지엘 교수(Jacek A. Koziel) 가 미국 친환경 축산 악취 적용 시스템 적용 사례와 저감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최동윤 과장은 "악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축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축산 관련 단체, 연구 기관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무더위 속 가축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소개

농촌진흥청(이양호 청장)은 무더위 속에 가축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지면 가축들은 체온이 올라 물을 많이 마시고 사료는 덜 먹게 된다. 이럴 경우 가축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지 않아 번식이 힘들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환풍기를 이용하면 가축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개방형 축사는 창문이나 윈치커튼(높낮이 조절 커튼)만 열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창이 없는 밀폐식 축사의 경우 공기 순환이 잘 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공기가 들어오는 관을 이용할 경우 덕트(관)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한다. 운동장이나 축사에 빛가림막을 이용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그늘막의 설치 방향과 높이,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을 이용해 가축의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도 고온의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개처럼 물을 뿌리는 장치나 스프링클러, 샤워 시설을 설치하면 축사 내 기온과 가축의 피부 온도도 낮출 수 있다. 터널 환기(Tunnel-ventilation)식의 밀폐식 닭장은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에 쿨링패드를 설치해 닭장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냉수를 공급할 경우 가축이 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를 덜 먹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가축별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폭염을 이겨내기 위한 고온기 가축과 축사 관리 기술서'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newli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유통분야 HACCP활성화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 및 식육수입업체 간담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6월 13일(금) 인증원 9층 회의실에서 「유통분야 HACCP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및 식육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하여 축산물 유통의 위생안전성을 선도하는 대형유통업체(7개, 12명), 식육수입업체(3개, 4명) 및 한국수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산물 HACCP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현장여론을 제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인증원이 2014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유통분야 HACCP 활성화 대책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유통업체 HACCP 확대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국내 식육의 유통은 농장으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HACCP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수입식육 유통과정(축산물 보관 및 운반)에서 HACCP적용이 저조하여 수입식육업체 및 한국수입육협회 담당자와 HACCP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통합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13.1.31), HACCP체인(전용망) 구축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제」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고 향후 대형유통법인의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증원은 앞으로도 HACCP체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브랜드경영체 뿐만 아니라 유통법인, 유가공업체 등 「안전관리통합인증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정보365+ 웹진 서비스 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소비자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발행하는 「등급정보365+」가 온라인 소식지인 웹진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웹진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축산유통종합정보"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m.ekapepia.com 으로 접속하여 KAPE Magazine 메뉴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급정보365+ 주요내용 : 칼럼, 축평원리포트, 우수농가소개, 고기상식 등

허 영 원장은 「등급정보365+」의 웹진 서비스로 더 많은 고객에게 축산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등급판정결과 활용방법을 공유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농산물 위생 · 안전관리 대폭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 ·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비축농산물 안전 공급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6월 3일 오전 농식품부기자실에서 최근 추진해온 「비축농산물 위생 · 안전관리 추진성과 브리핑」을 갖고 "정부비축 수입농산물은 ①수출국 선적 → ②도착항 통관 → ③비축기지 입고 → ④보관 등 4단계의 위생 ·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T는 수입농산물의 위생 ·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수급안정용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국영무역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축농산물의 위생 ·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7S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기 위생 · 안전검사 제도' 도입,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위생 · 안전 COMMITTEE(커미티)'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aT형 위생 ·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7S : 정리(SEIRI), 정돈(SEIDON), 청소(SEISO), 청결(SEIKETSU), 세정(SENJYOU), 세척(SATTKKIN), 습관화(SHITSUKE)의 약어

또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 080-800-0277)'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눈높이를 반영한 '품위규격' 강화와 함께 수입농산물의 선적 전 단계부터 품질 및 위생 ·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선적지 품위확인' 제도를 국제공인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선진축산 구현 위해 축산연구원–서울대학교 MOU 체결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원장 고종열, 이하 축산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학부장 이창규)는 2014년 05월 28일 서울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축산업 발전의 선진화를 위한 학술교류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축산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대외협력을 위한 물적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교환, 기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축산연구원 고종열 원장은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과 서울대학교의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